

Nr. 2023 - 07-08

휴식



Licht und Salz

휴식

편집부

현 대인의 바쁜 생활 속에서 휴식은 우리에게 활동만큼이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몸만큼이나 중요한 마음의 휴식. 마음은 어떻게 해야 쉴 수 있을까요? 큰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다면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지 하고 결심만 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깊은 내면의 근심과 걱정을 찬찬히 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힘들어 하는구나 라고 마음 자체를 알아주고 달래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있을 자리, 쉴 자리가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성 베드로 광장에서 일반알현을 통해 휴식에 관한 계명에 대해 이같이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 [현대 사회는 즐길, 엔터테인먼트와 휴가에 목말라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일은 매우 활발하며, 광고는 이상적인 세상을 마치 모두가 즐기는 큰 놀이터로 그려냅니다. 오늘날의 지배적인 삶의 개념은 활동과 헌신에 중심을 두지 않고, 회피와 일탈에 중심을 둡니다. 즐기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돈을 씁니다. 그 모델은 바로 다양하고 넉넉한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진정한 휴식이 아닙니다. 현실로부터의 도피이며 소외감인 유흥에 의해 무감각해진 삶에 대한 불만족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인류는 오늘날처럼 많은 휴식을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처럼 공허함을 경험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즐기고, 밖으로 나가고, 크루즈 여행을 하고, 많은 여행을 하는 것 외에도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충만함을 주지 못합니다. 곧,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휴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빛을 제시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찾아 얻습니다. 이 계명에는 특유의 요소가 있습니다. 곧, 동기 부여를 제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의 휴식은 정확한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옛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탈출 20,11).

이는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를 마치시고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것이 참 좋았다”(창세 1,31)라고 하신 말씀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로써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한 하느님의 기쁨인 휴식의 날이 시작됩니다. 이날은 묵상과 축복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에 따르는 휴식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회피의 때가 아닌 바로 묵상의 때, 찬미의 때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서의 휴식에 반해 십계명은 현실에 대한 축복으로서의 휴식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날의 중심, 곧 주일의 중심은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의 성찬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생명과 자비와 모든 은총의 주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다른 날들을 지우기 위한 날이 아닙니다. 다른 날들을 기억하고 축복하는 날이며, 삶과 평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과의 삶과 평화롭게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삶이 쉽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말하면서 삶과 평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이와같이 안식일의 의미는 단순히 쉬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 거룩하게 보내는 데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일, 거룩한 미사 안에서 진정한 내 마음의 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입니다. ||||



5월 청년미사

휴식

편집부에서 드리는 글

-

사제와 함께 / 허광철 요셉 신부님

-

살아가는 이야기 / 전영민 수산나

세례 소감 / 이동현 콘스탄티누스

복음글

공소 글 (레겐스부르크) / 심나리 레아



2023년 빛과 소금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발행됩니다.

1,2월 시작 (Neuanfang)

3,4월 평화 (Friede)

5,6월 감사 (Dankbarkeit)

7,8월 휴식 (Pause)

9,10월 순교 (Martyrium)

11,12월 성찰 (Reflexion)



5월 청년미사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휴식과 미사——마태 14,22-36 묵상

허광철 요셉 신부

어느 두 수사가 수도원장에게서 들에 나가 밀을 거둬들이라는 분부를 받았다. 두 수사는 낮으로 밀을 베어 단으로 묶어나갔다. 둘째 수사는 시간마다 쉬곤 하는 데 반해, 첫째 수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을 때 보니 쉬지 않고 일한 첫째수사보다 둘째 수사가 더 많은 밀을 베어놓은 것이다.

첫째 수사가 그 결과에 놀라서 동료에게 물었다. “나는 쉬지 않고 일했는데도 틈틈이 쉬어가며 일한 형제가 밀을 더 많이 베었군요. 그 비결을 좀 말해 주세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저는 틈틈이 쉴 때마다 제 낮을 갈았 습니다.”

쉬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휴식도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이며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다.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렛날 쉬신 것에 근거한다. 바로 6일 동안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일’에 쉬신 하느님께서서는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휴식은 멈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과연 우리의 휴식/휴가는 어떤 모양이어야 할까?

첫 번째는 오늘 복음 예수님의 모범이다: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셨다. 그 쉼의 모양은? 기도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서는 따로 기도하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마태 14,23)

마태복음과 같은 내용의 마르코 복음(마르 6,30-)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외딴곳으로 가시려 했지만, 군중들이 이미 따라 와 있었고,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다, 이어지는 복음은 오병이 어의 기적으로, 군중들을 먹이신다. 말 씀과 빵을 둘 다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휴식과 쉼의 시간은 바로 말씀과 빵을 둘 다 주시는 시간이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시간은 언제인가? 바로 미사 시간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 빵을 먹으며, 다시 살아가 할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미사 시간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휴식 시간은 바로 이 미사 시간이다. 주일

미사참례가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쉬는 시간임을,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마리아 마르타의 이야기처럼, 주일미사에 마르타처럼 분주하게 오만가지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몫을 우리는 택해야 할 것이다.

분주하고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뿐임을 기억하며,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는 말씀처럼, 우리 역시 미사의 섭을 통해 좋은 몫으로 표현되는 그것을 찾아 위로를 얻고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금 청해보자.

그러기 위해 미사 시작 전 최소 10분 전에는 성당에 도착하여 숨을 고르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모습을 더 많이 보았으면 좋겠다. 🇰🇷🇸🇰🇵🇨🇳



에엘랑엔-뉘른베르크 공소
32주년 기념 소풍
6월 10일 Schloss Mitwitz



에엘랑엔-뉘른베르크 공소 32주년 기념소풍 6월 10일 Schloss Mitwitz 2



5월 7일 어버이날 행사



5월 7일 어버이날 행사 2



5월 7일 어버이날 행사 3



어버이날 행사 꽃 (김종원 베르나르도)



5월 7일 어버이날 행사 4



5월 7일 어버이날 행사 5



6월 4일 삼위일체 대축일 미사

선택

전영민 수산나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좋은 선택으로 자신의 역량과 취향에 맞는 직업을 갖고 만족한 생활을 하는가 하면 선택이 빚나가 아주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직업적인 것만이 선택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를 맞이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선택으로 자신의 인생관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선택은 신중해야 하고 섣불리해서는 후회가 따를 수 있는 중대한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젊은 층들은 그래서 고민이 많다. 둘다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이것 아니면 저것'의 선택일 뿐 결코 두개 다가 아닌 것이다.

40여 년전 언어학원에서 독일어를 배울 때 교재로 다루었던 책자가 어느 날 책꽂이에서 나에게 눈을 맞추며 인사를 해 오는 듯했다.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 Fritz Ohrtmann (1925-1995)이 쓴 Reise nach Goms - 고크로가는 기차 - 라는 단편 소설이 있다. 그 대목을 배

우면서 크게 매료되었던 기억이 되살아났고 그때의 내 마음 풍경이 환히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에 크게 긍정이 가는듯해서 여기에 최소한 간추려 옮겨보았다.

소설 속의 화자가 된 젊은 남자는 결혼 후 저축한 돈을 다 털어 두 장의 고크 행 기차표를 샀다. 그곳은 상상 이상의 멋진 도시이고 아주 먼 곳이라는 것을 어릴적 부터 그의 아버지로부터 무수히 들어왔던 것이다. 그가 자랑하면서 고크라는 도시는 그의 꿈이고 희망이며 목표이자 운명이었던 것이다.

기차가 서서히 달리기 시작하자 그는 온 몸에 기대에 찬 전율을 느낀다. 물론 그의 아내도 그와 같은 생각일 줄 알았다. 열차가 간이역에서 2시간 정차 하는동안 그 마을을 돌아보다가 아내가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기차를 놓쳐 버렸다. 역에 딸린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세우고 다음날 고크로가는 기차를 탈 요량이었지만 고크행 기차는 언제 다시 올지 몰랐다.

그들은 여관 주인으로부터 일을 거들어 주는 대신 숙식을 제공 받았다. 그의 아내는 벌써부터 방을 아늑하고

지내기 좋고 실용성 있게 꾸미고 있었다. 곧 떠날텐데 하며 고평스크행 기차만을 기다리는 남편의 말에는 그저 흘러드는 듯 좋은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고 능수를 쳐버린다. 그가 밤낮 없이 다시 고평스크로 갈 궁리를 하고 있는 동안 아내는 마을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면서 여러 면으로 활동적인 면이되어 주민의 한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어느 날은 구닥다리 안락의자 하나를 들여왔다. 이장 집에서 일한 대가로 돈 대신 이 의자를 요구했다는 황당한 말을 들은 그는 아연실색했다. 그는 한푼이라도 기차표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데 몇 주간 일해주고 이런 낡은 의자를 돈 대신 받아온 아내에게 화가 치밀었지만 또 그렇게 지나갔다.

그는 여관에서 팁으로 받은 돈을 한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무효가 되어버린 기차표를 다시 살 수 있는 금액이 모아졌다. 그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려는 것이다. 고평스크 행 승강장에서 예의 그 안락의자를 붙잡고 있는 아내에게 얼른 타라고 종용하지만 의자를 두고 갈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화물 요금까지 낼 수 없는 처지에 혼자라도 떠나려는 순간 아내가 임신한걸 알려주자, 그는 용수철처럼 기차에서 뛰어내린다.

아내가 아이를 가진 사실도 오로지 고평스크행 기차만을 생각하는것 외에는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다. 하는 수 없이 고평스크에 대한 기대는 접어두어야

했지만 아주 포기한 상태는 아니었다. 아직도 마음속으로 한 두 해 동안 돈을 모으면 꿈이 이루어지리라, 아니 꼭 이루어야겠다고 자신에게 다짐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마을의 이장이 그를 불렀다. 교장이 연로하시니 후임 교사로 일할 수 있겠느냐고 제의해 온것이다. 아담한 정원이 딸린 교장 사택에서 과일 나무도 있고 아이들 놀기에도 좋은 집이라고 일러준다. 마련해 놓은 보금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아직도 고평스크에 대한 꿈을 저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에게 '언제 철이 들 것인가?' 하며 부추기는 아내 때문에 결국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 동안, 둘째 아이도 낳고 학교장으로서는 학부형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두루 두루 나무랄 것 없는 안락하고 만족한 삶을 이룬 것이다. 그 연로하신 교장과도 친구가 되어 그가 타게할 때까지 좋은 말동무가 되었다.

하루는 그 교장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고평스크로 떠나지 않은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기차가 마을에 정차했을 때 기차를 놓친것, 다시 기회가 왔을 때, 떠나지 않은 바로 그때 그의 운명은 결정됐다는 것이다. 사람이 원하는것이 그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고평스크로 가는 걸 포기한 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예컨데, 간이역에서 기차를 놓친 것은 운명을 결정짓는 서막이었고 또 다시

기회가 왔을 때 포기를 한 순간, 그의 운명이 확실해졌다는 이론이다. 그가 열망하며 이상적인 도시라고 확신에 차 있던 고프스라는 상상의 도시, 행복한 삶을 약속해 줄 것으로 믿었던 그곳으로 떠나지 않은 것, 그리고 따분하다고만 생각했던 시골 마을에 정착한 것, 그러한 과정이 바로 자기가 진정한 삶이 아니었을까 하는 때 늦은 깨달음이 오자 그는 만족할 수 있었고 그 처음으로 행복감을 느꼈다.

가끔, 고프스행 기차의 기적이 울려오면 잠시 생각에 잠기는 버릇이 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덤덤해졌다. 마을에서, 그의 가족들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 자신도, 고국과 가족을 등지고 이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었고 나의 운명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젊은 나이에 아예, 미지의 세계를 넘나들어 보려는 의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혹여 선택의 차질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이 머리를 쳐들었을 때도 소설 속의 안락의자가 그를 붙들어 맨 것처럼 나를 이렇게 주저앉힌 그 무언가가 나의 선택에 박차를 해준 셈이 아닐까.

아무렴 어찌랴! 나의 선택, 나의 운명에 응원을 보내고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



5월 14일 성모성월 미사



5월 14일 성모성월 미사 2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 37-42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38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39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40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41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42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세례 소감

이동현

콘스탄티누스

6 | 번 세례와 세례 준비 기간은 저에게 사랑과 감사, 평화라는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러가지를 배우고 알게 되었지만, 저는 그중에서 Gottes wille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겪은 많은 힘든 일들도 결국에는 Gottes wille라면, 제가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된 것도, 여기서 많은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도, 모두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경험이 하나라도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었던, 다시 보면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지요. 세례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가장 맑은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싶었고, 그러한 결과로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 저는 너무나 큰 행복이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삶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인간과는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인간이란 본디 세계에 대한 모델과 예측이 있고, 모든 일이 그 예상처럼 흘러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늘 이면에 혼돈이 내포되어 있어 삶은 늘 힘들고 예상치 못한 변수투성이

가 되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두번째 화살을 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나에게 날아오는 첫 번째 화살이라 하면, 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그 후에 나를 괴롭힌 그 일들에 대한 집착은 두번째 화살이 되어 내 안에서 나에게 또 날아오는데, 그 두 번째 화살은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발사된 괴로움 이기에 자신의 내면을 다스림으로써 화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이러한 내용은 현대 심리학에서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의 신앙심을 통한 삶의 수용은 그것의 다음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Gottes wille에 따라 흘러간다는 생각은 지금 저에게 날아오는 고통과 힘든 일도 모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도, 제 신체가 특별한 모자람이 없는 것도, 오늘 아침에 무사히 눈을 뜨고 오늘 저녁 무사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받기까지의 원만한 인성당 공동체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세례 준비 기간동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주임 신부님과 저에게 늘 큰 힘이 되어주는 회원이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현 콘스탄티누스

휴식

심나리 레아 (레겐스부르크 공동체)

표 린세스 메이커라는 게임이 있다. 90년대 애니메이션 및 게임의 명가 가이낙스에서 만든 이 게임은 용사가 우연히 얻은 열 살짜리 딸을 18세가 될 때까지 키우는 것이다. 이 게임에서 게이머, 즉 아빠는 돈을 벌지 않는다. 그는 집에서 딸의 스케줄만 짠다. 아빠의 계획에 따라 딸은 일찌감치 생업 전선에 뛰어들다. 실제 자식을 기르는 것을 생각하면 팔자가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쉬운 일만은 아니다. 딸의 계획표를 짤 때에 주의할 점이 있다. 계획표에 반드시 자유행동이냐 여행을 선택해서 딸을 쉬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일이나 공부만 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딸은 우선 투입되는 작업에서 농땡이를 부린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일을 시켜서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면 딸은 앓아눕는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비인간적인 호기심으로 또 일을 시키는 경우, 딸은 마침내 생을 달리하고 용사 아빠는 딸의 수호성인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으며 참혹한 양육 성적표를 받게 된다. 게임인데도 그렇다. 게임에서조차 쉬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다.

게임보다도 훨씬 복잡한 인간은, 단지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바짝 조여든 긴장감 또한 제때 풀어주는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休息은 쉴 휴에 쉴 식자를 쓴다. 그야말로 쉬고 또 쉬라는 것. 독일어로는 Entspannung 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말 그대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

예전에는 그리 익숙하지 않았던 “Burn Out”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는 요즘이다. 휴식의 중요성, 신체와 정신의 이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늘 게으른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내게 이 단어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 (다시 말해 burn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 같은 거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게임 속 수호성인의 선택을 받은 아이도 안 쉬면 죽는 걸 보면, 잘 쉬는 건 잘 살기 위해 꼭 수행해야 하는 일인 걸지도 모른다. 죄책감 없이 쉬어보자. 돈과 시간, 에너지가 모두 있다면 여행을 가도 좋고, 돈이 없다면 게임 속 딸 마냥 용돈 없이 시내를 쏘다녀도 좋고, 에너지마저 없다면 늘어지게 집에서 쉬어도 좋은 것이다. 소소하게 혹은 질편하게, 다들 원하는 방식의 휴식을 가질 수 있기를.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마르 6,31) ■■■



미사 후 레겐스부르크 Dult 방문



레겐스부르크 공동체 총회



6월 8일 Fronleichnam



6월 8일 Fronleichnam 2



6월 8일 Fronleichnam 태극기



6월 8일 Fronleichnam 3

주일 미사 안내

원헨 공동체

매주일 15시

Allerheiligenkirche am Kreuz
(Kreuzkirche)

Kreuzstr. 10, 80331 München

에를랑겐/뉘른베르크 공동체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시

KHG Erlangen 경당

Sieboldstr. 1, 91052 Erlangen

뵐르쯔부르그 공동체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KHG Würzburg 경당

Hofstallstr. 4, 97070 Würzburg

레겐스부르그 공동체

-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5시

Weiherweg 6A, 93051 Regensburg

공동체 사무실 안내

화, 목, 금 : 10:00 - 15:00

방문 시 카톡이나 전화로 먼저 연락
바랍니다.

Dachauerstr. 23 / 3. Stock

80335 München

Tel. 089 26 05 729

Fax. 089 26 01 83 29

Koreanischsprachige-Mission.

Muenchen@eomuc.de



『빛과 소금』은 여러분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licht.salz@gmail.com

빛과 소금 편집부

김수연 아가타

김진영 암브로시오

문석영 라파엘라

백효현 로사

서유리 카타리나

유재민 노엘